동국대 경주캠퍼스 간화선 대중화 나선다

'禪센터 건립' 위한 사리친견법회 봉행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선센터 건립불사에 나섰다. 경주캠퍼스는 오는 11월4일부터 6일까지 선센터 건립불사 기금마련을 위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한다.

첫째 날인 4일 오후4시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법회는 불교음악연주회와 진신사리 이운식 및 영산회상, 선센터 건립불사를 위한 건립계획 설명회 및 지난 7월 달라이라마가 경주캠퍼스에 전한 사리 5과 친견법회 순으로 진행된다. 또 5일과 6일 이틀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반신도를 위한 친견법회도 봉행된다.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수행의 장이 될 선센터는 연건평 2970㎡(900평) 규모로, 1층에는 선다도실, 수련생 숙소가 들어서며 2층은 선실, 3층은 달라이라마에게서 전수받은 사리 5과와 만불이 봉안되는 만불전, 선실로 꾸며질 계획이다. 개원 후에는 간화선을 활용한 좌선실습과 선체조, 선무도, 선치유, 선다, 선상담과 요가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종 총장은 "세계지성인들은 참선과 명상을 현대의 새로운 정신문화 패러다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며 "선센터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인 선수행과 더불어 참선을 통한 인간본성의 깨달음을 구축하고 현대인의 스트레스 치유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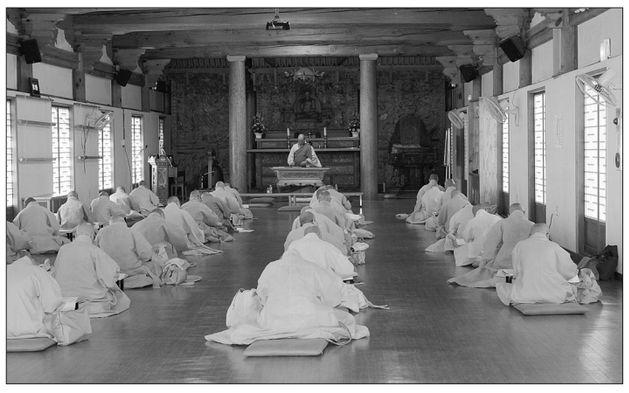
한편 경주캠퍼스는 선센터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종)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부산 영주암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스님을 증명으로 추대했다.

이와 함께 정각원 원장 화랑스님, 영주암 주지 범산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허인구 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장에게도 건립 추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최병문 부산지사장 ch4717@ibulgyo.com

수행평가 강화 2급·3급 승가고시 치러

1일 합격자 발표 4일 법계 품서식


지난 20일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열린 2급 승가고시에서 논술작성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

출가한 지 20년 이상 된 스님들의 종단과 사회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점검하는 2급 승가고시가 지난 20일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시험에는 비구 스님 43명, 비구니 스님 36명 등 총 79명의 스님이 응시했다.

1교시 논술시험이 한창인 만덕전과 설법전에서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답안작성에 몰두한 스님들은 좀처럼 답안지에 눈을 떼지 못했다. 시험은 불교 교학, 전법포교분야, 사찰 및 종단운영 분야 중 택일해, 출제된 세 문제 중 하나를 골라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존엄사에 대한 불교적 관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법활동, 국가법령의 종단과 사찰에 미치는 문제점 등 현대사회 속 불교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승랍 10년 이상인 스님을 대상으로 한 3급 승가고시가 진행됐다. 비구 스님 70명과 비구니 스님 80명이 응시해 교학과 수행, 전법교화 등에 대한 필답고사와 면접을 치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은 "스님들이 자신의 개인 수행과 포교 교화력,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분야별로 출제했다"며 "올해부터 2급과 3급 고시의 수행평가가 강화된 만큼 필답고사와 면접에서 스님들의 수행이력을 평가하고 지식을 점검하는 데 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치러진 2급과 3급 승가고시 합격자 명단은 오는 11월1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게시된다.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비구 스님은 대덕, 비구니 스님은 혜덕 법계를 받게 되며,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비구 스님은 중덕, 비구니 스님은 정덕 법계를 각각 받게 된다. 합격자는 11월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법계 품서식에 참석해 법계를 받아야 한다. 2급 승가고시 합격자인 대덕·혜덕 법계는 오전11시, 3급 승가고시 합격자인 중덕·정덕 법계는 오후1시에 각각 품서식이 진행되며, 가사, 장삼, 자필유언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직지사=어현경 기자

KBS 열린음악회 녹화 조계종 "장애인과 함께"

종교문화축제 15주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15주년을 기념해 지난 18일 KBS홀에서 개최한 '열린음악회'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왼쪽에서 첫번째) 등이 참석했다. 신재호 기자

국내 7개 종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올해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15주년을 맞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8일 KBS홀에서 각 종단 지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음악회 녹화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보다 의미 있는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KBS측과 협의해 '열린음악회'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오후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녹화 현장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임운길 천도교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김인규 K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녹화 방송은 오는 11월 27일 오후6시부터 7시까지 KBS1 TV를 통해 방영된다. 가수 양희은, 김종환, 인천오페라합창단, 씨스타 등이 출연한다.

한편 2011년 종교문화축제는 7개 종교단체가 같은 날 동시에 행사를 진행한 예년과 달리, 각 종교계에서 11월 중순경부터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조계종은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실내관현악단인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10월18일 종무회의 결과

석원스님	성원스님	진성스님	종호스님	정련스님
미국동부해외특별교구	서울 보각사	서울 관음사	부산 화엄정사	부산 내원정사
목윤스님	현담스님	묘운스님	염혜스님	도현스님
수원 정혜사	청양 장곡사	상주 관음사	성주 자비선사	봉화 홍제암

제방의 고견청취 기회 감사 선거준비 충분치 못해 사죄

비구니회, 회장 경선관련 입장 발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9대 집행부가 지난 10일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0대 회장 경선과 관련 "제방의 비구니 스님들께 감사와 사죄의 글을 올린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구니회 제9대 집행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두 분 후보 스님들은 각자 최선을 다해 제방에서 전국비구니회와 종단에 대한 여러 고귀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선거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이번 선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방의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전국비구니회의 미래를 밝히는 불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례없는 대중이 운집함에 따라 운영의 미숙이 있었음을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원만히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던 점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고, 이를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운달스님 "변화 여망" 확인

이에 앞서 제10대 비구니회장으로 출마해 낙선한 운달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운달스님의 선거추진위를 해산하며'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운달스님 선대위는 이를 통해 "유례가 없었던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항간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면서 "현 집행부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태도는 전국비구니회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직시토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비구니 스님들의 변화와 개혁의 여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지, 비구니계 전반에 널리 알린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바로잡습니다

▫ 2761호 1면 '가장 행복한 나라' 국왕 결혼식 기사 가운데 '히말라야에 위치한 네팔'을 '히말라야에 위치한 부탄'으로 바로잡습니다.

▫ 2760호 4면 여여정사 기사 중 밀양시장 이름을 엄용수 시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불기2555년도 (2011)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5(2011)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계신고

▮신 고 일 : 불기2555(2011)년 **10**월 **31**일(월, 음력 10.5) ~ **11**월 **10**일(목, 음력 10.15)

▮신고장소 :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함.

▮신고대상 : 본 종 소속 모든 승려

▮신고방법

- 본 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 종 관장 하의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 해외에 장기 거주하더라도 해외 출국(활동) 신고는 매 안거 마다 하여야 함.
- 종단 지정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 함. 다만, 선원 외호대중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 포살 법회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함. [불기2554(2010).11.16 개정]
-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당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포살참여 예외

가.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불기2554(2010).11.16 개정]
나.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라.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 신고 및 해외 출국(활동)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포살 시행일 :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권리제한의 구제 [불기2554(2010).12.30 신설]

-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누락된 경우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를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누락된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 단,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 유예기간의 산정 기점은 서류가 접수된 시점이므로, 대중결계록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수계, 승가고시 응시, 법계 품수의 서류 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2010분한신고미필로 승적말소된 스님의 결계, 포살 참여

-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승적말소된 스님은 추후 승적 말소 회복 신청시 불이익이 없도록 금번 시행하는 『불기2555(2011)년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살 법회 후, 점명부에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고, 단체 사진 촬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계 신고시 본인의 인적사항(법명, 속명, 승적번호, 소임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교구본사는 포살일에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의 실천사항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